

21세기 대학과 다양한 학문

이 영 주 한국사회과학도서관장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전반의 연구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교수, 연구원, 대학생, 회사원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특히 연구논문을 쓰기 위해 우리 도서관을 찾는 연구자들이 많다. 최근에는 대학생 이용자 중에서 취업이나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인데, 이들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문연구서나 학술논문보다는 시험출제 경향을 잘 정리한 서적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명색이 학술 전문도서관인데 좀 더 많은 전문 연구자들에게 우리 도서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학도서관도 경향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도서관의 핵심은 방대한 소장 자료와 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도서관이 시험 준비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자료를 늘리는 것보다 안락한 열람석을 더 마련하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

어느 대학이든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 있다. 도서관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정신이기 때문에 대학의 상징적인 건물로 대접받는다. 이런 도서관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겐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전반이나 전공 관련 지식을 늘리기 위해 맘을 쏟았던 추억의 장소로 기억 속에 남아야 한다. 도서관이 단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취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열람실로 기억되고 만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각 대학에서 학부제 등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전공은 대체로 취업이 잘 되거나 세속적인 출세가 예상되는 분야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순수 기초학문은 일부 대학에서 존폐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강의가 개설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분야의 기존 교수진도 자리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에 신규 교수 채용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런 경향이 오래 지속되면 대학에서 순수 기초 학문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대학 입학 경쟁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졸업후의 취직 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지원학부나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소위 인기학과나 학부는 당연히 취직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우리 나라가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낸 곳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며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곳은 대학이다. 한때 정치적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대학은 언제나 정의와 양심의 보루였다. 그러면서도 대학에는 묵묵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축제 기간에도 대학 도서관에는 밤 늦게 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데모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공부만 하는 학생도 있었다. 대학에는 학술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에서부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 공존했으며, 그리고 기초 학문으로부터 첨단 실용 학문에 이르기까지 대학에는 다양한 학문이 공존했었다. 본래 대학이 갖고 있었던 이런 다양성의 저력 때문에 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와 인물이 달라져도 언제나 그런 자원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대학 존재의 이유가 된다. 대학은 단기적인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문을 보존·육성하고 인재를 묵묵히 길러내고 있다가 언제든지 어떤 분야의 인재든 사회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의 다양한 전공과 연구 분야가 취업률이라는 단순한 평가지표에 의해 부상하거나 위축된다면 대학은 점차 지금까지 의연하게 수행해왔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전공 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을 영어로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대학의 전공 또는 학문이 주로 단기적인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에 존재가 결정된다면, 시대가 바뀌어 그전까지 홀대받던 분야에 다시 사회적 수요가 집중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재를 기르는 데는 그리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에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성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균형적인 지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전공과 무관하게 역사와 철학, 문학 등의 인문학 소양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성인의 모습이고

이런 분위기를 대학이 지켜주었으면 한다. 오래된 학문일수록 그리고 순수 기초학문일수록 평생토록 유용하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지금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장된다면 이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진이나 연구자들이 들 어설 곳이 없게 된다. 모든 대학이 취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만 앞다투어 육성하고 순수 기초학문을 소홀히 한다면 대학에서는 더 이상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잠재력 그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보존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대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와 대학으로부터 인재를 직접 공급받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기업은 재정이 긴박하게 어렵지 않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투자에 인색하지 않는 한 대학은 안정적으로 더욱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재정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국·공립 대학만이라도 학생들의 전공선택이나 단기적인 취업률에 집착하지 않고 의연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수 기초학문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교육의 기본정신을 국·공립 대학만큼은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성화를 추구하는 대학도 있고 특성화 추구는 물론 순수 기초학문도 함께 보존하는 대학도 있는 것이 21세기 대학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영주**

이영주

숙명여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사회과학도서관장, 숙명여대 정보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사회과학 정보자료기관협의회 이사이며,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의 이사를 맡고 있다.